

2024. 5. 21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5월 20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미래한강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

공 원 부 장	허현수	3780-0627
공원여가과장	이종혁	3780-0750
담 당 자	허 진	3780-0849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4매

한강 서식 수달제비 관찰... 서울시, '생물종 다양성의 날' 기념 10종 생태체험 첫선

- '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' 맞아 6개 한강공원에서 10종 무료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
- 한강공원에 둥지 튼 제비, 수달 흔적, 야간 곤충 등 관찰하며 생물 소중함 배워
- 기존 생태체험 30종 프로그램 더해 총 40종 골라 경험...선착순 접수 후 참가

UN이 정한 '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'(5.22)을 맞아, 서울시는 31일까지 한강생태공원에 서식 중인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고 배우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10종을 처음으로 선보인다. 생물의 소중함과 보존 가치에 대해 알린다는 취지다.

○ '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'은 생물종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과 그에 얽힌 여러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UN이 제정한 기념일이다.

한강공원에 둥지를 튼 제비가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고, 한강에 살고 있는 수달 가족의 배설물, 발자국 등 흔적을 찾아보며, 한강에 서식하는 곤충을 직접 살펴보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다. 한강생태공원은 도심 속에서 접하기 어려운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품고 있어 더욱 생생한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한강생태공원 생태체험 학습센터에서 열리는 봄맞이 생태체험 30종 프로그램에 더해 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골라 경험할 수 있다.
 - 6개 생태체험 학습센터는 ▲여의도샛강 ▲암사 ▲한강야생탐사센터 ▲고덕수변 ▲난지생태습지원 ▲강서습지원 이 있다.
- 여의도샛강생태공원 :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25일(토)에는 도심 속 생태공원에서 살아가는 수달에 대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<수달가족축제>를 준비했다. 수달 그림그리기 대회, 수달책방, 수달 팝업북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. 또한, 수달의 배설물, 발자국 등 흔적을 직접 찾아보는 <수달 똥을 찾아라>도 22일(수)에 진행된다.
- 암사생태공원 : 22일(수)과 25일(토)에는 한강공원에 서식하는 생물 긴병꽃풀, 찔레꽃 등을 관찰하고 식물도감을 만드는 <암사 숲 풀꽃나무 이야기>가 진행된다. 생태계를 이해하고 생명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.
- 한강야생탐사센터 : 야간 시간에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. 야간에 한강으로 찾아오는 말뚝게와 곤충을 직접 관찰하고, 낮의 풍경과 다른 밤의 습지 속 멋진 야생의 습지를 경험할 수 있는 <숫!밤의 이야기를 들어봐>가 24일(금)에 열린다.
- 고덕수변생태공원 : 한강공원을 찾아온 피꼬리, 꼬마물떼새, 흰눈썹황금새 등 야생조류의 번식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<21세기 흥부 가족을 찾아서(제비탐사)>가 25일(토) 준비돼 있다. 생명의 신

비함과 소중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난지생태습지원 : 개구리와 애벌레를 찾아보고 이를 습지원에서 채취한 나뭇가지, 자연물 소재의 재료들로 만들어보며 생물종 다양성을 체험해보는 <도담도담 축제>가 25일(토)에 개최된다.
- 강서습지생태공원 : 26일(일)에는 새들이 둥지를 짓는 다양한 장소와 재료를 알아보고 인공둥지에 어떤 새가 번식하고 있는지 관찰하는 <둥지를 지어요>를 만날 수 있다.
- 모든 한강 생태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무료다. 참가 신청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(<http://yeyak.seoul.go.kr>)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. 자세한 문의는 미래한강본부 공원여가과(☎ 02-3780-0849)로 하면 된다.
 - 각 프로그램별 운영시간과 진행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니 예약 페이지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.
-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초록으로 물든 한강공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자연생태의 신비함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신규로 마련했다.”며 “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‘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’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며, 생태공원 간 협력 행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※ 붙임 : 관련 사진



▲ 고덕 <박새가 알을 낳았어요>



▲ 고덕 <21세기 흥부가족을 찾아서>



▲ 셋강 <수달가족축제>



▲ 난지 <도담도담 축제>



▲ 강서 5.19. <둥지를 지어요> 풍경



▲ 암사 5.20. <한강의 담수어 특강> 풍경